

18

[1] Notice to Hilltop Apartment Residents

Hilltop 아파트 주민 대상 공지

[2] In accordance with fire safety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keep all hallways free of personal belongings such as bicycles, boxes, and small furniture.

소방 안전 규정에 따라 모든 복도에는 자전거, 상자, 작은 가구와 같은 개인 물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Hallways serve as critical evacuation routes during emergencies, and anything left there could block the way and pose serious safety risks.

복도는 비상시에 중요한 대피 통로 역할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길을 막아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To ensure the safety of all residents, we request that any personal items placed in the hallways be removed by Monday, April 14th.

모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도에 놓인 모든 개인 물품들을 4월 14일 월요일까지 다 치워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5] Please note that not following this may result in penalties.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We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n maintaining a safe environment.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1] Nathan boarded the train on Saturday evening.

Nathan은 토요일 저녁에 기차에 탔다.

[2] As he made his way to his seat, he found someone already sitting there.

그가 자리로 다가갔을 때, 이미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3] Confused, he checked his ticket and realized his mistake — it was for Sunday, not Saturday!

당황하며, 그는 자신의 표를 확인했고 실수를 깨달았다.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표였던 것이다!

[4] A flush of panic spread across his face.

그의 얼굴이 당황하여 화끈거렸다.

[5] He quickly approached a train attendant and explained the situation.

그는 서둘러 기차 승무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다.

[6]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resolve this?" Nathan asked.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Nathan이 물었다.

[7] "Don't worry, sir. We still have seats available," the attendant said with a reassuring smile.

"걱정 마세요, 손님. 아직 이용 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승무원이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8] Nathan exchanged his old ticket for a new one, his worries melting away.

Nathan은 이전의 표를 새 표로 교환하였고, 그의 걱정은 사라졌다.

[9] Settling into his seat, he let out a deep breath, feeling the tension in his shoulders ease as the train began to move.

그의 자리에 앉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1] Fans who are inclined to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as fans should also think about the corresponding obligations that fans might have as fans.

팬인 자신에게 (운동) 선수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향이 있는 팬은 '팬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2] One who thinks only about what they are entitled to receive from their friends without ever giving a moment's thought to what they owe their friends is, to put it mildly, not a very good friend.

자신이 친구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니다.

[3] Similarly, fans who only think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without ever thinking about what they owe to athletes have failed to take the fan/athlete relationship all that seriously.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수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선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팬은 팬-선수의 관계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4] As in nearly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whatever special rights fans may possess are limited by a corresponding set of obligations, and fans who never think about how they can be better fans even as they confidently opine about what athletes owe them are hardly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처럼, 팬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권리도 (이에)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 제한되며, 선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는 확신에 차 말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팬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21

[1] The concept of ecosystem states should be familiar to anyone with a home vegetable garden.

생태계 상태라는 개념은 가정용 텃밭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것이다.

[2] The garden is a small ecosystem that the grower attempts to keep in a specific state, namely the maximization of fruit and vegetable production.

텃밭은 재배자가 특정한 상태, 즉 과일과 채소 생산의 극대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작은 생태계이다.

[3] To achieve this, the grower is almost always intervening in the dynamics of the ecosystem; they remove unwanted plants that begin to grow and perhaps spray insecticides and fence off the patch to stop insects and other animals from consuming the vegetables.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배자는 거의 항상 생태계의 역학 관계에 개입한다. 즉, 자라나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하고, 곤충과 다른 동물들이 채소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쩌면 살충제를 뿌리고 밭에 울타리를 칠 수도 있다.

[4] Since maximizing vegetable growth is an inherently unstable state for the ecosystem, the grower is effectively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채소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생태계에게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배자는 사실상 경사면 위에 공을 잡아 두고 있는 것이다.

[5] If the grower stops intervening, even for a day, the ecosystem, that small patch of ground, will naturally begin to shift to a more stable state.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재배자가 개입을 멈춘다면, 그 생태계, 즉 그 땅의 작은 밭은 자연히 더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6] Vegetables may still grow, but yield will almost certainly be lower as other plants crowd out the vegetables and wildlife consume the produce.

채소는 여전히 자라겠지만, 다른 식물이 채소를 밀어내고 야생 동물이 작물을 먹기 때문에 수확량은 거의 틀림없이 더 적을 것이다.

[1] Commitment is the glue holding together characteristically human forms of social life.

약속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 특유의 형태를 결속하는 접착제이다.

[2] Commitments make individuals' behavior predictable in the face of fluctuations in their desires and interests, thereby facilitating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of joint actions involving multiple agents.

약속은 개인의 욕망과 관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행동의 계획과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3] Moreover, commitments make people willing to perform actions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perform.

게다가, 약속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을 행동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만든다.

[4] For example, a taxi driver picks up his clients and transports them to their desired destination because they are committed to paying him afterwards for the service, and a construction worker performs her job every day because her employer has made a credible commitment to pay her at the end of the month.

예를 들어, 택시 기사는 고객이 나중에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고객을 태워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송하고, 건설 노동자는 고용주가 월말에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일 업무를 수행한다.

[5] Indeed, the taxi driver and the construction worker are willing to accept money as payment only because a network of other agents (notably the central bank) is committed to taking various measures to sustain the currency in question.

사실, 택시 기사와 건설 노동자가 돈을 보수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다른 주체(특히 중앙은행)들의 네트워크가 해당 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6] Thus, social objects and institutions such as jobs, money, government, scientific collaborations and marriage depend for their origin and stability upon the credibility of commitments.

따라서 일자리, 돈, 정부, 과학적 협력, 그리고 결혼과 같은 사회적 대상(객체)과 제도는 그 시작과 안정성을 위해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다.

23

[1] If the brain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 and name, why do we still end up remembering one and not the other?

뇌가 이미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는 기억하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2] This is because the brain has something of a two-tier memory system at work when it comes to retrieving memories, and this gives rise to a common yet infuriating sensation: recognising someone, but not being able to remember how or why, or what their name is.

이는 기억을 생각해 내는 것에 있어서 뇌가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진 무언가를 작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이것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왜 (아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흔하지만 짜증 나는 감정을 유발한다.

[3] This happens because the brain differentiates between familiarity and recall.

이는 뇌가 친숙함과 회상을 구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4] To clarify, familiarity (or recognition) is when you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and you know you've done so before.

명확하게 하자면, 친숙함(또는 인식)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마주쳤고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이다.

[5] But beyond that, you've got nothing; all you can say is this person/thing is already in your memories.

하지만 그 이상으로 는, 당신이 아는 것이 없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사물이 이미 기억 속에 있다는 것 뿐이다.

[6] Recall is when you can access the original memory of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recognition is just flagging up the fact that the memory exists.

회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인식은 단지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표시해 줄 뿐이다.

[1] Since their start in the early 1950s U.S. television sitcoms have charted many of the social conflicts in U.S. society: civil rights, women's rights in the home and in the workplace, children's rights,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as well as evolving conceptions of the family.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래로, 미국의 텔레비전 시트콤은 미국 사회의 많은 사회 갈등을 보여 주었는데, (점점) 진화하는 가족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권,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권리, 아동권, 이민과 다문화주의와 같은 것들이다.

[2] Each of these issues has been addressed through humour in a way that has helped to make more progressive values more acceptable than previously.

이 각각의 쟁점은 유머를 통해 보다 진보적인 가치들이 이전보다 더 수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3] Often a character, usually someone marked as a bigot, resisted one or more of these developments and was then made to appear ridiculous.

종종 등장인물 한 명, 대개는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특징지어졌던 누군가가 이러한 발전 중 하나 이상에 저항하고 나서 (그가) 어리석어 보이게 되었다.

[4] They were cut down either through their own stupidity, a brief scolding from others, or both.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짧은 비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배제되었다.

[5] In this way, the humour of sitcoms acted as a cost-effective means to encourage acceptance of a more pluralistic and tolerant society.

이러한 방식으로, 시트콤의 유머는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수용을 장려하는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26

[1] Friedrich Mohs, a wellknown mineralogist, was born on January 29, 1773, in Gernrode, Germany.

잘 알려진 광물학자인 Friedrich Mohs는 1773년 1월 29일 독일의 Gernrode에서 태어났다.

[2] He displayed a marked interest in science at an early age.

그는 어린 시절 과학에 뚜렷한 흥미를 보였다.

[3] He studied chemistry, mathematics, and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Halle and also studied mineralogy at the Mining Academy.

그는 University of Halle에서 화학, 수학, 물리학을 공부했고, 또한 Mining Academy에서 광물학을 공부했다.

[4] In his late twenties, he went to Austria and classified minerals by their physical attributes.

20대 후반에, 그는 오스트리아로 가서 물리적 속성에 따라 광물을 분류했다.

[5]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his led to conflicts with many mineralogists who followed the conventional methods.

그의 이러한 새로운 분류 체계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많은 광물학자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6] In 1812, Mohs was appointed Professor of Mineralogy at the Joanneum, where he developed the Mohs Scale of Mineral Hardness.

1812년에, Mohs는 Joanneum의 광물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모스 굳기계를 개발했다.

[7] Mohs ended his remarkable career at the Mining University in Leoben and died at the age of 66 in Italy.

그는 Leoben의 Mining University에서 그의 훌륭한 경력을 마무리했고 이탈리아에서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 The prominence of the social dimension in food writing might suggest that the flavor of food is taking a back seat.

음식에 관한 글에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음식의 맛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시사할지도 모른다.

[2] I suspect that most people view flavor as of secondary importance in social settings where food is served.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이 제공되는 사교적 상황에서 맛을 부수적인 중요성을 띤 것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3] Although our social gatherings coalesce around food, the meaning of these gatherings does not seem to depend on flavor.

우리의 사교 모임이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 맛에 달려 있지 않은 듯하다.

[4] Flavor assisting with the narrow purpose of filling the belly, and once that is accomplished it provides the backdrop for whatever social dynamics characterize the gathering.

맛은 배를 채운다는 좁은 (의미의) 목적에 도움이 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맛은) 모임을 특징짓는 사회적 역학 관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배경을 제공한다.

[5] These can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flavor of the food on offer, the appreciation of which is understood to be personal and subjective.

이(사회적 역학 관계)는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음식의 맛)에 대한 감상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6] According to this conventional wisdom, the ceremonies and rituals around food, the social events that supply food with its meaning, does not depend on the quality of sensations provided by the food.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예식과 의식, 즉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교 행사는, 음식이 제공하는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7] To focus excessively on flavor is to miss the larger significance of these social relations.

맛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더 큰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다.

[1] There are reasons why science is not fully trusted and why healthy skepticism and critical thinking are essential.

왜 과학이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건강한 회의주의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인지에는 이유가 있다.

[2] In spite of professional standards, claims of objectivity, and the peer review process, the conduct of science can be biased.

전문적인 기준, 객관성에 대한 요구, 동료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실행은 편향적일 수 있다.

[3] All experts are not the same, nor do they submit their work to the same scrutiny.

모든 전문가가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의 연구를 동일한 심층 조사를 따르게(거치게) 하는 것도 아니다.

[4] Knowing the source of funding can be important in evaluating scientific claims.

자금 조달의 출처를 아는 것은 과학 (분야)의 주장을 평가할 때 중요할 수 있다.

[5] For example, the Harvard researchers who made claims in the late 1960s about the problems with dietary fat, leading the nation away from perceiving sugar as one of the main causes in health problems, were funded in part by the sugar industry.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에 식용 지방의 문제점에 관해 주장하여 설탕이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을 전 국민이 못하게 만든 하버드의 연구자들은 설탕 업계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았다.

[6] The authors did not reveal their funding source to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where their influential article appeared.

그 저자들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실렸다.

[7] Their article shaped a generation of changes in eating patterns that appears to have fostered higher use of sugar, now widely implicated as a source of the rise in obesity and diabetes.

더 많은 설탕의 사용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논문은 식습관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 냈는데, 지금은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 증가의 원인과 관련이 있음이 널리 알려 졌다.

[8] Stories such as this one fuel suspicion — but also lead to further safeguards in the scientific process.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의심을 부채질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절차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이끌어 냈다.

[9] Funding disclosures, although not required five decades ago, have since been made compulsory.

자금 조달의 출처 공개는, 비록 50년 전에는 요구되지 않았지만, 이후 의무화되었다.

31

[1] The explosion of popular music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the global circulation and dissemination of music by the creative industries propelled a new understanding of accessibility in relation to music.

창작 산업계의 전 세계적 음악 유통과 보급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의 대중음악의 폭발적 증가는 음악과 관련된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했다.

[2] Suddenly, in the 1950s, anyone could pick up spoons, a couple of pans, a second-hand guitar and start a band.

갑자기, 1950년대에, 누구나 숟가락, 냄비 몇 개, 중고 기타를 집어 들고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다.

[3] This led to specific genres such as skiffle, but also, more generally, reflected a much more relaxed and inclusive attitude to music making.

이는 스키플(skiffle)과 같은 특정 장르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음악 제작에 대한 훨씬 더 여유롭고 포용적인 태도를 반영했다.

[4] While ordinary people had always sung and made music, the popular music movement was driven by a spirit of rebellion and freedom.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어 왔었지만, 대중음악 운동은 저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 촉진되었다.

[5] This approach led to the punk movement, whose musicians even made it a condition for their music to be non-virtuosic and accessible to all in the 1970s.

이러한 접근 방식은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70년대에 이 음악가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음악이 전문성이 높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삼았다.

[6] Groups who had been entirely excluded from music revelled in opportunities to create.

음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창작의 기회를 만끽했다.

[7] This led to a sense of novelty and empowerment in and beyond the music sphere.

이는 음악계 안팎에서 참신성과 자율성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1] Great scientists are seldom one-hit wonders.

위대한 과학자가 반짝 스타인 경우는 드물다.

[2] Newton is a prime example: beyond the Newtonian mechanics, he developed the theory of gravitation, calculus, laws of motion, and optimization.

뉴턴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뉴턴 역학을 넘어 중력 이론, 미적분학, 운동 법칙 및 최적화를 발전시켰다.

[3] In fact, well-known scientists are often involved in multiple discoveries, a phenomenon potentially explained by the Matthew effect.

사실,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여러 발견에 관여하는데, 이는 아마도 매튜 효과로 설명되는 현상일 것이다.

[4] Indeed, an initial success may offer a scientist legitimacy, improve peer perception, provide knowledge of how to score and win, enhance social status, and attract resources and quality collaborators, each of these payoffs further increasing her odds of scoring another win.

실제로, 최초의 성공은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료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며, 어떻게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자원과 우수한 협력자를 끌어들이는데, 이러한 각각의 보상들은 과학자가 또 다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

[5] Yet,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 Great scientists have multiple hits and consistently succeed in their scientific endeavors simply because they're exceptionally talented.

그러나,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는데, 위대한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성공을 거두고 지속적으로 과학적 노력에서 성과를 이루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유난히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Therefore, future success again goes to those who have had success earlier, not because of advantages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but because the earlier success was indicative of a hidden talent.

따라서, 미래의 성공이 이전에 성공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이는 이전의 성공으로 인해 제공된 이점 때문이 '아니라', 이전의 성공이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7] The Matthew effect posits that success alone increases the future probability of success, raising the question:

매튜 효과는 성공은 '(그) 하나만으로' 미래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상정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8]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or does it simply reflect an underlying talent or quality?

지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근본적인 재능이나 자질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일까?

[9] In other words, is there really a Matthew effect after all?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매튜 효과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1] When we realize we've said something in error and we pause to go back to correct it, we stop gesturing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before we stop speaking.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다시 수정하려고 돌아가기 위해 말을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말을 멈추기 수백 밀리세컨드(0.001초) 전에 손짓을 멈춘다.

[2] Such sequences suggest the startling notion that our hands "know" what we're going to say before our conscious minds do, and in fact this is often the case.

이러한 순서는 우리의 손이 의식적인 마음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고' 있다는 놀라운 개념을 암시하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3] Gesture can mentally prime a word so that the right term comes to our lips.

손짓은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켜 정확한 용어가 입술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4] When people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they talk less fluently; their speech becomes halting because their hands are no longer able to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and the next.

사람들은 손짓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덜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손이 더 이상 다음 단어와 또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 없어서 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5] Not being able to gesture has other deleterious effects: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es along, we remember less useful information, we solve problems less well, and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손짓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해로운 영향을 갖는다. 정신적 과정을 쪽 도와주는 손짓이 없으면, 유용한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6] Far from tagging along as speech's clumsy companion, gesture represents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손짓은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선도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1]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between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it can be suggested, that our sense of the past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our view of the future.

과거와 미래, 즉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항상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2]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to frame their future cause, as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from nationalism to communism.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예시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 것처럼,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항상 과거를 참고해 왔다.

[3]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as variously a recovery of a lost time, as a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or as a model bequeathed by a heroic age long gone.

미래는 종종 잊힌 시간의 회복, (이미) 확립된 것의 복제, 또는 오래 전에 없어진 영웅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로 다양하게 여겨져 왔다.

[4]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that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since the historian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and the past is nothing more than the accumulation of futures that are now our past.

역사의 서술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사가는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란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So, rather than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perhaps it can be seen in reverse, with the past —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따라서 과거의 손길이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으로, 즉 과거가 — 그것(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5

[1] Dictionaries are relatively good resources for anyone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a word means.  
사전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교적 좋은 자료이다.

[2] Using one set of words to define another word is called a lexical definition.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하여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을 '어휘적 정의'라고 한다.

[3]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imits of dictionary definitions.  
하지만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More often than not, a definition in a dictionary requires readers to have a fairly robust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already at their disposal.  
대부분, 사전 속의 정의는 독자가 이미 자유롭게(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5] In other words, a dictionary functions in many cases as a cross-reference or translator between words one knows and words that one doesn't yet know.  
다시 말해, 사전은 많은 경우 아는 단어와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의 상호 참조 또는 번역기 역할을 한다.

[6] Even the most obscure words in a dictionary, say, for example, "pulchritudinous" or "kalokagathia," must be defined using words that the reader already knows and understands.  
사전에서 가장 난해한 단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 'pulchritudinous'나 'kalokagathia'조차도, 독자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7] Otherwise, the dictionary isn't very helpful.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The governments of virtual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attach great importance to achieving food security and a wide variety of mechanisms have been developed to realize this goal.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는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이 개발되었다.

[2] The first issue governments face in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is the problem of insuring that adequate amounts of food are available to the resident population.

정부가 국가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거주민에게 충분한 양의 식량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Some governments have set goals of food self-sufficiency, which means most if not all of the food available in a country comes from the domestic farming system.

일부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한 국가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국내 농업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4] However, food security does not require food self-sufficiency because countries can import food items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그러나, 식량 안보는 식량 자급자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가 자국 내에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Agricultural products are, after all, highly sensitive to climatic, soil and other conditions that tend to vary around the world.

어쨌든, 농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 토양, 그 외 다른 조건에 매우 민감하다.

[6] Even countries with extremely productive agricultural sectors are not fully self-sufficient in all food items.

매우 생산성이 높은 농경 지역을 보유한 국가도 모든 식품에서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depends on imports for its supply of coffee, tea, bananas and other tropical products.

예를 들어, 미국은, 커피, 차, 바나나 및 다른 열대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수입품에 의존한다.

[8] In general, the problem of assuring adequate food supplies is solved by relying on both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s.

일반적으로, 적절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문제는 국내 생산과 수입에 모두 의존함으로써 해결된다.



37

[1] Stress not only affects physical disease but also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s, making us even more likely to experience a drained brain.

스트레스는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피로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도록 만든다.

[2]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done to reveal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s when they go through something stressful.

건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겪을 때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3] One study demonstrated a link between a smaller hippocampus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

한 연구는 줄어든 해마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4] Why does this matter?

이것이 왜 중요할까?

[5] This part of the brain helps you remain resilient in the face of stress and is involved in mood regulation.

뇌의 이 부분(해마)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분 조절에 관여한다.

[6] It also helps you to monitor the safety of your environment and store dangerous images in your longterm memory so you can avoid them in the future.

그것은 또한 당신의 주변이 안전하지를 감시하고 위험한 이미지들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여 미래에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It does all these things as part of its duties of regulating your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s.

그것(해마)은 이 모든 것들을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8] But chronic stress can confuse the hippocampus and lead to turning signals for cortisol "on" instead of "off," which can trap you in a constant state of fight, flight, or freeze.

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란스럽게 하고 코르티솔의 신호를 '끄는' 대신 '켜는' 쪽으로 바꾸어, 당신이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꼼짝 못 하는 지속적인 상태에 갇히도록 만들 수 있다.

38

[1]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lthough science is a rule-based procedure, it is very much a creative process.

비록 과학은 규칙에 기반한 절차이지만, 매우 창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A conjecture is a philosophical invention, cooked up rather mystically by the mind through the mental computation we call careful contemplation.

추론은 철학적 발명으로, 우리가 신중한 숙고라 부르는 머릿속 계산을 거쳐 사고를 통해 다소 신비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3] However, until the hypothesis is tested against reality, it is not yet truly knowledge; it is just information that represents speculation.

그러나, 가설이 현실에 비추어 검증되기 전에는,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에 불과하다.

[4] Knowledge is information that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지식은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한 정보이다.

[5] It is what is left over after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그것(지식)은 수차례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후 남은 것이다.

[6] As scientists continually test their hypotheses and modify their models to account for new and surprising data, a kind of "learning loop" emerges that statisticians call Bayesian updating.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가설을 검증하고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모델을 수정함에 따라,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일종의 '학습 루프'가 나타난다.

[7] Based on Bayes' Rule, developed by eighteenth-century English statistician and philosopher Thomas Bayes, Bayesian updating refers to a mathematical process whereby an accepted theory or predictive model gets increasingly accurate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of competing variants of that theory.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였던 Thomas Bayes가 개발한 베이즈 정리에 기초하여, 베이지안 업데이트는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그 이론의 다양한 변형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해지는 수학적 과정을 일컫는다.

[1] As a general rule,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s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일반적으로, 당신의 (용어) 정의가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종류의 논의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가능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더 좋다.

[2] There will be, however, occasions where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pulative definition.

그러나, 철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This would be the case where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현재의 어휘로는 당신이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For example,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that describes a memory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예를 들어, 그것(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는 일반 언어에 없다.

[5] Such a thing would occur, for example,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6] I would have a memory-type experience, but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즉,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7] To call this a memory would be misleading.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8] For this reason, philosophers have coined the special term 'quasimemory' to refer to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s.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기억과 유사한 이러한 가상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냈다.

[1] Quite often the interaction between groups is socially unequal,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in many cases borrowing of words or constructions goes mostly or entirely in one direction, from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 to the less favored one.

종종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며, 이는 많은 경우에 단어 또는 구조의 차용이 대부분 혹은 완전히 한 방향, 즉 더 강하거나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혜택을 덜 받는 집단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에 반영된다.

[2] The languages of socially subordinated groups may from quite an early period of contact provide terminology for objects or practices with which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 were previously unfamiliar, but the effects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may not progress any further than this.

(집단 간) 접촉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화자들이 전에 잘 몰랐던 물건이나 관습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의 접촉의 결과는 이것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3] In some cases, as with the Dharug language of Sydney, Australia, the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oans from Indigenous Australian languages into English, the fate of the language system is extinction after the obliteration of many of its speakers.

호주 토착 언어에서 영어로의 몇몇 최초의 차용 출처인 호주 시드니의 Dharug 언어와 같은 몇몇 경우에는, 화자들 중 다수가 소멸되고 나면 그러한 언어 체계(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의 언어 체계)의 운명은 멸종하는 것이었다.

[4] The remainder shifted to varieties of English,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o had suppressed them.

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의 다양한 변종으로 (사용 언어를) 전환했다.

[3] → Language borrowing from dominant to subordinate groups reflects social inequality, where the language systems of the latter often vanish even though they may have provided some terms, as exemplified by Dharug in Australia.

→ 지배 집단으로부터 종속 집단으로의 언어 차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데, 호주의 Dharug 언어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후자의 언어 체계는 몇몇 용어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종종 사라진다.

41~42

[1] In 1900, at the close of the first decade in which electric systems had becom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manufacturers, less than 5 percent of the power used in factories came from electricity. 전력 체계가 제조업자를 위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은 첫 10년이 끝날 무렵인 1900년에, 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력의 5% 미만이 전기에서 왔다.

[2] But the technological advances of suppliers made electric systems and electric motors ever more affordable and reliable, and the suppliers' intensive marketing programs also sped the adoption of the new technology.

그러나 (전력) 공급자의 기술적인 진보가 전력 체계와 전기 모터를 유례없이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만하도록 만들었고, 공급자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 또한 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촉진시켰다.

[3] Further accelerating the shift was the rapid expansion in the number of skilled electrical engineers, who provided the expertise needed to install and run the new systems.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 것은 숙련된 전기 기술자 수의 급격한 증가였는데, 이들은 새로운 (전력) 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4] In short order, electric power had gone from exotic to commonplace.

순식간에, 전력은 생소한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5] But one thing didn't change.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6] Factories continued to build their own power-supply systems on their own premises.

공장들은 계속해서 공장 부지에 자체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7] Few manufacturers considered buying electricity from the small central stations.

소규모 중앙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는 제조업자는 거의 없었다.

[8] Designed to supply lighting to local homes and shops, the central stations had neither the size nor the skill to serve the needs of big factories.

지역의 가정과 상점에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중앙 발전소는 대규모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규모도 기술도 갖추지 못했다.

[9] And the factory owners, having always supplied their own power, were loath to assign such a critical function to an outsider.

그리고 공장 소유주들은, 항상 자체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기능을 외부인에게 맡기는 것을 꺼렸다.

[10] They knew that a glitch in power supply would bring their operations to a halt — and that a lot of glitches might well mean bankruptcy.

그들은 전력 공급에서의 결함 하나가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많은 결함은 반드시 파산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 As the new century began, a survey found that there were already 50,000 private electric plants in operation, far surpassing the 3,600 central stations.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 한 조사에서 이미 50,000개의 민간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중앙 발전소 3,600개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 밝혀졌다.